

함께 with



500일의 변화
우리는 목장으로 간다

2010 창간호 *spring*

함께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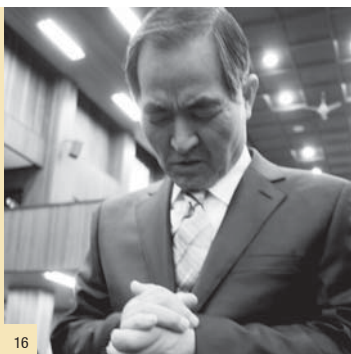


COVER STORY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이다.
한 가족이 필그림에 모여 각자의 손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담았다.
생명의 봄에 "함께"가 창간호를 내고,
그 안에 우리의 여러 모습을 담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
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Contents _Spring 2010

- 목양실 러브레터 4
- "함께" 발간을 축하하며 _ 6
- 500일 특집
 - 부임 500일 8
 - 은퇴 500일 11
 - 500일간의 변화 14
- 특집 "우리는 지금 목장으로 간다"
 - 이것이 목장이다 16
 - 목장 탐방(남, 3교구) 18
 - 목장 탐방(여, 2교구) 20
 - 목자교육 따라잡기 22
 - 목자의 각오 23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유치부 24
 - 2030, 디딤돌 26
 - 살롬 가정을 찾아서 28
 - 필그림 150일 30
 - 식당 봉사부 32



"함께" 창간호

발행일: 2010년 5월 22일

발행인: 조상용

편집장: 김용수

상임기자: 심재성, 신신혜, 최정은

객원기자: 이은영, 조재란

발행부서: 문서홍보팀

디자인: 박나래, 한미영, 정아련

주소: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042-622-9991

홈페이지: www.jungbu.or.kr

- 가정세미나 34
-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퍼즐 37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가양2동 38
 - 길에서 만나다 40
 - 되살미사랑나눔봉사대 42
 - 지금 선교지에서는(AX국) 44
- 나의 삶, 나의 신앙 46
- 이런 일 저런 일 48
- 신임 교역자 소개 51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52
- 옛날 옛적에 _ 중부 역사 54
- 중부 Culture
 - 청소년 코드 읽기 58
 - 사모의 글 60
 - 문홍팀 웃음소리 62
 - 내 솜씨, 우리 가족 63



‘함께’라는 말 속에 담긴 뜻

글 조상용 담임목사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란 하나님의 존재방식이요, 우리가 구현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1_ 우리는 가족(家族)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혈연보다 더 진한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지내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 줍니다.

2_ 우리는 동지(同志)입니다.

목적이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동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3 _ 우리는 전우(戰友)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나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 싸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나는 '함께'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회회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이요, 동지요, 전우임을 잊지 않는다면, 대전중부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가족애와 동지애와 전우애로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권영복

발간 축하 메세지

김주원 | 원로목사

2010년 봄에 친근감을 주는 “함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을 종종 심방합니까?”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심방합니까?”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기 때문에 심방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처받은 형제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인창 | 원로장로

중부교회 51년 역사를 여호와 이레와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특히 좋은 목자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다룰 수 있는 “함께”라는 교회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부교회는 이 교회지를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고 도와주는 십시일반의 힘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정배 선교사 | 싱가포르 선교사

함께'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가 교회 내외의 여러 가지 소식과 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대신하여 '함께'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함께'가 교회와 선교지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교회에 나누어지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합니다.



황경숙 집사 | 3여전도회 회장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에 가득하여 창립 이래 큰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라는 교회지가 발간되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함께”를 통하여 교회소식과 소통의 창구가 되며 성도들에게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크게 받아 내실과 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진아 자매 | 청년부 부회장

살롬 !! 대전 중부교회 첫 회지인 '함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년을 대표해서 축하 메시지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함께'라는 회지의 이름처럼, 앞으로 중부교회가 서로의 옆자리를 지켜주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중부교회 파이팅~!!





부임 500일에 듣는
조상용 목사님의 꿈과 에너지!

은혜의 파도타기를 즐기리!

인터뷰 최정은 기자, 신신혜 기자

500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해가는 대전중부교회의 역사 속에 500일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대전중부교회의 500일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온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7대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조상용 목사님이 있었다. 이제 부임 500일을 즈음하여 조상용 담임목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자 목양실을 방문했다.

Q 기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부임 500일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 500일이 되어 가는군요.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팀웍을 다지는 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교회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기자 부임 이후 ‘교육관 건축’, ‘필그림하우스 오픈’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많이 이루어내셨는데요, 이러한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에 어떤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A 목사님 당회실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중보기도실을 새로 마련하였고, 교회의 숙원사업이던 교육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교회 외부에 카페를 만들어서 성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 돌릴틈 없이 달려온 5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새 비전도 만들고, 훈련도 시키고, 조직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그 저 힘을 보태면

서 열심히 따라와 준 성도님들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Q 기자 올 한 해도 준비하고 계신 계획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은 무엇인가요?

A 목사님 올해는 오래된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착착 일이 진행되어 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도타기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 내실을 기하는 목회에 주력할 것입니다. 올해 목장사역을 출범하였습니다. 남성, 여성 목장을 잘 정착시켜서, 잃어버린 소그룹 날개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훈련도 시작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담임목사인 저부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중도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자삼아,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Q 기자 목회 활동을 하시며 가장 염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목사님의 목회관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저의 관심은,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내부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Q자 ‘함께’지가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함께’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기를 바라시는지요?

A목사님 ‘함께’지는 우리교회에서 지향하는 문서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함께’지를 널리 소개해서 중부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알렸으면 합니다.

Q자 끝으로 대전중부교회 성도들께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목사님 1년 여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어느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담임목사가 잘 적응하는 것을 보니 교회도 잘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칭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칭찬이 들리시죠?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가정사역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목사님과 김혜경 사모님의 포즈는 우리교회 모든 부부들이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도록 몸으로 말씀하시는 듯 하다.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은퇴 500일을 맞아

김주원 목사님을 만나다

인터뷰 김용수 기자, 심재성 기자

은퇴생활을 인터뷰하러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다.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않을까? 과거에 치우친 대화가 너무 오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문을 열고 얼굴을 맞대는 순간까지 기자가 더 긴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 주셨고 사모님은 언제나 웃는 모습 그대로
맛있는 굴과 꽃감, 따듯한 차를 내 주셨다.



Q 기자 은퇴하신 후 많은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지요, 어떠신지요?

A 목사님 은퇴한지 벌써 500여일이 되네요. 은퇴 후 미국에 살고 있는 딸 집에 약3개월 다녀왔고 요즘은 후배 동역자들의 초대로 가끔 설교를 해 왔습니다. 예배는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은목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주중에는 새벽부터 점심 전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가까이 있는 계족산 등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서울과 수원 의 자녀들 집에도 다녀오지요. 은퇴 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Q 기자 중부교회에서 오랜 사역 기간 동안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무엇인지요?

A 목사님 1981년 7월 담임목사로 부임해 보니 현재 1층의 교육관을 제외하고는 본당, 지하 모두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늘어나는 부채도 짝으



“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나에게,
모든 자라는 당신들께 ”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칼뱅의 교훈이다.

가만히 두 손을 마주 잡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다정한 모습.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한다.

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내부공사를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여러 일이 과로가 되어 저는 간질 환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하였는데 초기에 완치를 하지 않고 교회 일을 반복하던 중 더욱 악화되어 세 번째 치료를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악화되지 않도록 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주 주미산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사모님께서 이때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모두에게 힘든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커다란 뱀이 도망가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완치되어 이후로는 별다른 병 없이 목회생활을 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자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목사님 은퇴한 사람에게 취미생활은 반드시 있어야지요. 미국 딸집에 있을 때 사돈되는 장로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골프를 전공했고, 책도 많이 쓴 분입니다. 저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중 골프가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웠는데 얼마나 매료시키는지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3~4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속에 빠질 것 같아 요즘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Q기자 요즘 여러 책을 많이 보시고 새로운 공부도 하신다는데 소개 해 주십시오.

A목사님 예, 지금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전혀 의외의 새로운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영어공부를 시작했는데 큰 사위가 선물 한 “솔로몬이 쓴 영어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영어로 공부하게 하는데, 핵심은 영어 100문장을 철저히 암송하고 응용하는 단계로 가도록 하는 책이지요. 처음에 100문장을 암송하려면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50분이면 다 암송합니다.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고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Q기자 저도 영어공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솔로몬이 어떻게 영어 책을 썼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목사님 담임목사직은 은퇴하였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현장에 나아가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집중력이 더 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주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도중에 포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기자 목사님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 성도님들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목사님 빌3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조상용 목사님을 보내셨고 조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 목사님이 잘 해주셔서 원로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지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한 분이 1,000여 명의 교인을 맞추어 갈 수는 없지만 1,000여 명이 교인은 담임목사 한 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나에게, 모든 자라는 당신들께”라는 칼뱅의 교훈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자 목사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릇 누구나 은퇴는 있으나
은퇴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때
삶은 아름다움으로
더욱 충만해 질 것이라는
믿음을 얻은 시간이 되었다.”

500일간의 변화



정태응 장로 | 하경위 위원장

거친 광야를 지나, 잔잔한 물가의 그늘 아래로 인도 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 달기 직전에 있던 선교원이 교육관을 건축하므로, 실버대학 및 주일 학교가 활성화 되었다. 금요 영성집회, 특별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학교, 화요성경공부, 제직세미나 행복한 부부세미나 등 잠자는 듯 조용한 제단에 비전과 활기를 불어 넣었고, 올 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남성 목장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모든 성도가 힘을 다 해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로 이뤄 나가길 소망한다.

윤석의 집사 | 1 여전도회 회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조상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부교회 전체가 나가는 방향이다. 성경통독, 중보기도, 제자반, 목장 등 많은 변화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새롭게 솟아나는 각오와 다짐을 체험하게한다. 조상용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변화의 주역이 되리라 확신한다.



한혜숙 권사 | 비례4목장 목사

오랜 세월 함께한 목사님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새로 만나는 목사님에 대한 기대로 두 마음이 교차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500일이 되었다. 목사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여러 사역을 은혜로 채워 나가는 과정을 목사님과 함께하다보면, 편한 것에 익숙해져 부담스러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꽃은 피겠지? 나도 믿음의 나래를 활짝 펴본다.



인치경 집사 | 고등부 부장

지난 500일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모두의 마음에 큰 꿈이 생겼다는 것이다. 샤프한 매력이 넘치는 목사님의 유쾌한 설교는 가슴으로 파고들어 비전을 그리게 하며, 신선하고 젊음이 넘치는 많은 사역이 뒷받침되어, 가고 싶은 교회, 헌신하고 싶은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조상용 목사님께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지역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하우진 전도사 | 중등부 교육전도사

중부공동체에 500일 간 불어온 변화는 불꽃놀이를 보는듯한 황홀한 연합의 바람이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불가능도 가능하게 됨을 경험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나를 접었고 뜻을 하나로 집중했으며
어느덧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꿈으로 닮아가고 있다.



| 특집 '우리는 지금 목장으로 간다' |

이것이 목장이다!

인터뷰 심재성 기자, 최정은 기자

회지 ‘함께’ 창간호의 특집기사로 준비한 ‘우리는 지금 목장으로 간다’의 첫 코너로 조상용 담임목사님과 인터뷰를 준비했다. 2010년 목장의 힘찬 출발을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실 목사님으로부터 목장의 개념과 목장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았다.

Q 기자 기존의 구역예배와 목장모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목사님 구역예배는 주일예배의 축소판으로서, 또 한번의 예배를 드리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모임은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목장모임은 단순한 만남(meeting)이 아니라, 생활(life)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한 주간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전도, 양육, 교제, 봉사와 같은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Q 기자 목장모임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A 목사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와 가장 근접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당시 교회는 성전(대그룹)과 집(소그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은 독수리처럼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목장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홀히 했던 소그룹 날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Q 기자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목사님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 담장을 뛰

어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장은 세상에 나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Q 기자 목사님이 바라시는 목장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장의 모습은 교회, 가족, 그리고 셀(세포)입니다. 먼저 목장은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흘러가는 가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장의 구성원들은 회원(member)이 아니라, 가족(family)입니다. 또한 살아 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처럼 성장하고 증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Q 기자 끝으로 목자와 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 목사님 목장모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정한 교회 생활은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당에서 모일 때는 교제와 돌봄과 양육이 불가능하지만, 목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목장이 없는 성도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보호받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목장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탐방(남):3-7목장

글 심재성 기자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들인데 걱정 말고 언제든 참석 하세요’

전화기 너머 정홍식 집사님의 목소리가 다정다감했다. 남자목장 탐방의 첫 주자로 추천된 3-7목장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전화였다.

저녁 7시 첫 취재의 설렘과 약간의 어색함 등을 담고 예배 장소인 최춘하 집사님댁을 방문했다. 목자이신 정홍식 집사님과 예비목자 박민수 집사님 그리고 김상희 집사님이 미리 와 계셨고 이후 김홍섭 집사님과 박용일 성도님이 도착하셔서 총 11명의 목원들 중 6명이 참석했다. 3-7목장은 정재수 원로장로님을 비롯해 이날 참석치 못한 황덕순 집사님, 박기석 집사님, 최철호 집사님, 최재영 집사님이 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침 이 날은 교회의 웃놀이예에 참가하는 등 다른 일로 인해 모든 목원이 참여하진 못했다.

접대로 내 오신 보이차의 은은함 속에 정홍식 집사님의 간증으로 예배의 준비 시간을 가졌다. 집사님은 본인 스스로를 ‘32년 만에 돌아온 탕자’라 표현하며 지나온 과거의 잘못들과 새롭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현재의 삶을 고백하셨다. 새벽예배 등에 열심히 함께 하면서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대로 이루어짐’을 새삼 더욱 확인하는 요즘이라 했다. 함께 듣는 목원들의 마음은 물론 기자의 마음에도 새김이 있는 말씀이셨다.

이후 예배가 시작되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예배 중 다시금 목원들 간에 소소하지만 뜨거운 간증의 고백들이 이어졌다. 박용일 성도님의 경우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덕분에 본인은 자녀들보다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며 얹은 웃음을 지으셨다. 또한 마침 지난 주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며, 우리의 믿음과 그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념품’을 묻는 질문에 목원들이 돌아가며 답을 하던 중, 최춘하 집사님은 다과를 준비하시던 부인 도경애 권사님이 ‘나만한 기념품이 어디 있어!’라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아무 말 못하셨고,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최춘하 집사님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 3-7 목장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다과를 나누며 자연스레 친교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3-7 목장의 자랑이 무엇이야?’는 기자의 질문에 한결같이 ‘조화’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굳이 묻지 않더라도 목장 모임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해 본다면 그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느꼈다.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목원들이 비래동을 중심으로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토록 화목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3-7목장! 과연 대전중부교회 목장모임의 선두주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밤은 깊어갔지만 피곤한 기색들도 없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목원들의 얼굴에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은 평온한 웃음꽃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었다.

목장탐방(여):가양14목장

글 신신혜 기자

“마음을 펴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 마음을 믿음의 행복으로 펴 주는 따뜻하고 소박한 목장이 있다.

바로 가양14목장이다. 바다를 닮은 듯한 하늘에서 우산 가득 빗방울의 웃음소리가 내린 날이었다. 장소를 잘 알지 못해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가는 길...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훌쩍 지나 도착한 곳. 효촌 마을 이웅님 권사님 댁이었다. 미안한 마음 가득 안고 들어서는데 어찌나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지 감사한 마음 뿐이었다. 네 명의 목원들이 있었다. 목장예배 중이라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나눔”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바로 “나눔”이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목원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격려해 주며 마음을 나누고 있음을 알았다. 마음과 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진심어린 말로 다독여 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눔이 이렇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눔의 시간이 지나고 이웅님 권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칼국수를 준비하셨다.

권사님의 넉넉함이 보이는 음식에서 감사함이 묻어나 있었다.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유 많이 잡썬유”

하시면서 당신의 그릇보다 더 큰 그릇에 인심이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손길에 행복했다.

식사를 하며 목원들의 웃음소리는 더 없이 행복함으로 다가왔다. 음식을 나누며 이어지는 목원들의 서로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 목장에는요 든든한 권사님 두분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호호”

수줍게 웃으시는 류순례 목장님.

“아뉴 우리 목자님이 계시니께 그냥 그냥 더 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유”

이웅님 권사님의 겸손한 대답 속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시는 모습이 참 좋은 목장이구나 싶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올 해 목장의 목표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김옥자 권사님이 조용히 미소를 보이시며 “전도” 보다는 “잃은 양” 돌아옴을 기도로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했다.

가양14목장 목원들의 아름다운 한마디



류순례 목자 |

이응님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두 권사님으로
인해 편안하고 맘놓고
얘기 나누며 기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김옥자 권사 |

하나님 도움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쁨이 넘치는
목장입니다.



이응님 권사 |

기대되유, 좋아유,
참 좋아유.



김경선 예비목자 |

항상 기도함으로
“나눔”이 있어
너무 좋아요.

목원 가정이 열 가정이 넘는데 사업장이 있는 목원들이 많다 보니 목장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목원들은 전화 심방을 꼭하고 목장에 잃은 양이 많아 그들을 위해 항상 기대하며 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구역이 새롭게 목장으로 바뀌었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좋아유 그냥 좋아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 기대되며 다 좋아유” 하신다. 예비목자는 이응님 권사님의 자부인 김경선 집사이다. 목원들의 칭찬이 많은 예비목자는 골프선수를 전도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권사님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참 잘하고 좋다며 연신 자랑에 침이 마르신다. 집 안 구석구석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가득한 화분 속에 봄을 기다리는 꽃 몽우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가양14목장의 넉넉하고 마음을 퍼주는 행복함을 닮은 향기 가득한 꽃들이 봄이 되면 하나 둘씩 “나눔”으로 피어나리라. 향기로운 꽃향기처럼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의 향기가 목장으로 향하심이 보인다.

목장교육 따라잡기

*the catching-up of the training
for the shepherds*

글 최정은 기자

오늘은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난히 옮겨올은 추운 날이 많아 외출을 자제하고 몸을 움츠리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자와 예비목자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목장교육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목장 모임은 요즘 많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역예배의 발전된 형태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시작하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목장 모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듣던 것으로 낯설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처음에 목장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구역예배와 별 다를 게 있겠나?’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구역예배는 구역장 중심으로 예배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을 주로 하는 반면 목장모임은 예배 형식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목원들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중보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생활공동체이자 작은 교회인 것이다. 목장교육 수료식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

고 모든 목자들의 손에 일일이 십자가를 꼭 쥐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하시던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약간의 망설임으로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에도 잘 정착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다. 목장교육을 참석한 목자의 소견으로 볼 때 이제 어느덧 목장 모임은 한국 교회에서 Fashion의 단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듯 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는 곳에 항상 내가 있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목자의 기쁨

*the determination
of the
shepherds*

양희찬 집사 | 1교구 1-13 남 목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셨지만 목자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늘 마음에 간직하던 시편23편 말씀 중 “여호와야 나의 목자 시니....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어려울 때마다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에너지를 목원과 함께 목장을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할 것이다.

주정숙 집사 | 2교구 가양8 여 목자

우리 목장의 초기에는 새신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교회 출석이 불규칙적이고 신앙의 깊이나 헌신의 정도가 다른 목장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 우리 목장이 단단한 공동체로 변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기까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장의 목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가정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이러한 나눔이 가득 차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

송영희 권사 | 3교구 송촌6 여 목자

목장이 펼쳐지고 목자 교육을 받으면서 부담과 걱정이 앞섰지만, 조상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중부교회의 역사 한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나니, 잘 해보겠다는 욕심과 미약했던 지난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 이제 송촌 6목장을 성령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며, 목원 상호간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도록 작은 목자로서 노력하고 이것이 대전 성시화의 첫 걸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의 든든한 미래 유치부

글 박진화 선생님

올 해 초, 큰 아이가 유년부로 올라가고 작은 아이 혼자 유치부에 남게 되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아이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뿐 아니라 여섯 명의 어린 생명을 더 돌보게 하셔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유치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섰지만, 감사하게도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일마다 기쁘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하서운 전도사님, 진짜로 천사표 엄마같은 임영숙 부장님, 너무나 은혜로운 율동 대장 권민숙 선생님, 굿은 일 마다없는 언니같은 정정이 선생님, 유치부 꿈꿈쟁이 살림꾼 이미선 선생님, 예수님 향기가 진짜로 나는 이선미 선생님, 가장 많은 아이들도 다 커버되는 멋쟁이 김주영 선생님, 카리스마 목소리 윤석의 선생님, 영어로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는 똑똑이 원혜선 선생님, 아이들 마음 가장 잘 아는 고은주 선생님, 아이들을 정말 많이 안아 주시는 강성희 선생님,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나은정 선생님,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지선옥 선생님,

율동, 찬양, OHP까지 만능 엔터

테이너 이연주, 박용상 선생님, 매주 간식 챙겨 주시느라 말없이 부지런한 김영애 선생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더욱 감사하고,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생명들을 기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중부교회 유치부는 하서운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10여 분의 선생님들이 매주일 아침 11시 교육관 드림홀에서 60여 명의 아이들과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입학 전의 아이들이라 보니 예배가 다소 산만하고 소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하나 되고, 성령도 충만하고, 특별히 선생님들께 지혜와 건강 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유치부의 질적, 양적 큰 부흥이 있길 기대해 본다.





2030, 디딤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글 디딤돌 간사 김상복, 이선미



2030 디딤돌 창립예배 후 모든 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밝고 건강한 디딤돌지기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에너지를 볼 수 있다.

“ 이제 2030디딤돌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고 싶습니다.
 영적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의도하심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

사랑이 있고 패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고 교회를 힘 있게 지탱할 수 있는 겸손과 함께 열정이 있는 디딤돌이 곧 우리 2030 모임이다.

제일 처음 2030의 모임이 조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젠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정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떨림이 맘 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청년부 때의 왕성한 믿음의 열정과 활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은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2030(디딤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직이 되었다. 사랑이 있고 패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고 교회를 힘 있게 지탱할 수 있는 겸손과 함께 열정이 있는 디딤돌이 곧 우리 2030모임이다. 올해 처음으로 조직된 2030디딤돌 모임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온가족 동원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주 토요일 마다 전체 모임으로 모여 예배와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족적인 모임을 갖게 되고 2,4주는 각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와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6개의 목장으로 나누어 그 목장마다 목자와 예비 목자가 각

각 목장의 구성원들을 돌보며 양육하고 있다. 그리고 목자들을 기도와 격려로 후원해줄 간사님들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발로 뛰며 수고하고 겸손히 섬기실 임원들과 함께 2030디딤돌은 이제 첫발을 내딛고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2030디딤돌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무릎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적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부우실 안정감을 갖기 위해 상처들을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의도하심대로 하나님중심에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2030 디딤돌이 되도록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2030 디딤돌을 향해 쏟아져 부어지길 기도하며 소중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10년 파이팅하세요 ...

유영삼·권민숙 집사가정 높고 견고한 믿음의 성

글 조재란 기자

늦은 저녁, 인터뷰를 위해 유영삼 집사님 댁을 방문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니 자랑스러운 ‘대전중부장로교회’ 교패가 기세등등하게 붙어있었고 문 안에서는 아이들의 예쁜 재잘거림이 들려왔다.

이 가정엔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사연들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늦은 저녁, 인터뷰를 위해 유영삼 집사님 댁을 방문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니 자랑스러운 ‘대전중부장로교회’ 교패가 기세등등하게 붙어있었고 문 안에서는 아이들의 예쁜 재잘거림이 들려왔다. 이 가정엔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사연들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어서오세요. 집사님!”

권민숙 집사님께서 역시나 아름다운 미소로 맞아주셨다. 눈웃음이 닮은 두 분은 2000년도에 부부가 되셨는데 당시 권민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새신자양육담당을 맡고 있었고, 유영삼 집사님은 공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장(한국도로공사)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하였고 새신자양육을 받다가 하나님의 중매로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유영삼 집사님 가문의 믿음의 뿌리는 일제시대 부터이다. 집사님의 조부모님께서 그 위험한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이제 집사님의 자녀(수아10세, 권호7세)에게까지 4대를 물려 내려오고 있다. 권민숙 집사님께서도 친정어머니이신 남재화권사님을 따라 중고등부에 출석하며 우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남 권사님께서도 남편을 여의고 외롭고 힘들 때였고 교회에 가면 평안해질 것 같아 아무 망설임 없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아드님을 거룩한 주의 종으로 기를 부으셨는데 바로 태국에서 사역중이신 권정현선교사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느껴졌다.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의 명문가정을 보게한다.

권민숙 집사님은 유난히 아이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유아 선교학과를 전공하고 보육교사1급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싶었지만 출산이후 몸이 약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유치부 전도사님이신 하서운전도사님이 부임해오시면서 집사님의 달란트를 알아보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너무도 즐겁게 유치부교사로 봉사하고 계신다. 특히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칠 때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 가정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두 가문의 기도의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높고 견고한 믿음의 성이다. 사단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 주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참으로 부럽고 도전받는 가정이다. 이 가정의 영성이 그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며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고 견고해 질 것을 기도하며 방문을 마쳤다.

필그림 150일, 우리들의 따뜻한 공간

글 이은영 기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충만의
역사가 있었지만, 필그림하우스에서는
사랑충만의 역사가 가득하다.
오픈 150일을 맞아
우리의 카페 필그림에 대한
이모저모를 엮어 보았다.

요즘 새로 건축하는 교회에 가 보면 시설을 얼마나
잘했느냐하는 것보다 더 눈길을 끌고 부럽다고 생
각한 것이 있다. 바로 카페다. 교우들의 문화공간으
로, 지역민들의 열린 쉼터로 자리매김하는 카페를
볼 때면 우리 교회에도 크기에 관계없이 카페가 있
었으면 했다. 더욱 교회 근처에 유사한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미
여러 교우들이 필요성은 주고 받았지만 시작할 엄
두를 내지 못할 때, 시작의 불꽃을 당긴 분은 조상용
목사님이시고 청년부는 모두에게 불꽃을 보게 하고
함께하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

고등부 교육관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서 청년부는 소중한 간직하고 있던
큰 금액을 현금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움직임에 많
은 교우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현금, 현물, 노력
봉사 등을 자원했다.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한지 얼
마 되지 않아 진행되는 또 하나의 도전에 우려와는
달리 계획대로 지어져 갔고, 2009년 12월 19일 하
늘이 맑은 아침에 필그림 오픈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
었다.

카페를 오픈하여 150일이 된 지금, 전문적인 카페
운영 경험은 없었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를 방문
해서 노하우를 익히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원
봉사자를 모아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맛으로 서비스하는 자판기를
뒤로하고 폭신한 의자, 감미로운 음악, 따듯한 조명
을 받으며 오순도순 진한 커피 향을 느끼는 것으로
필그림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필그
림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배
나 모임이 끝나면 집으로 가기 바빴던 모습, 다음 예
배를 기다리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이나
교회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모습, 잠깐 소모임을 하
기에 어려움을 겪던 모습이 카페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으며, 중고등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젊
은 신앙인들의 숨결이 곳곳을 더해 주고 있다. 전
도 대상자에게 교회를 어려운 곳에서 부드럽고 이웃
같은 곳으로 인식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쉼터 역할
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제 150일을 맞은 필그림은 앞으로 어디까지 더 진
화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필그림을 어떤 공간으
로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겠다.
필그림에서 나오는 수익은 장학금이나 어려운 이웃
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제 필그림하우스가
타인의 방이 아닌, 나의 공간이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필그림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스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위대(胃大)하게 하는, 식당 봉사부
맛있는 향기가 가득 ^^
아름다운 이야기기가 가득 ^^

글 조재란 기자



식당봉사부 독순이(?)들이 다 모였다. 이분들이 계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한끼 식사에 들어가는 정성은 상상 이상이다. 좌로부터 존칭 생략된 소개를 하면 김현진, 윤미숙, 박순자, 김영숙, 김순이, 이인숙, 오양순, 송순현, 최연순, 김선자 이시다.

행복한 주일!

목사님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고 3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육의 양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 갑니다. 음~코끝으로 전해오는 냄새라고 하기엔 너무나 맛있는 향기들... “오늘 메뉴는 무엇 까? 이진 된장국 냄새데.. 고기 냄새도 나지? 고추장 양념한 거...” 여기저기서 식당에 대한 호기심으로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하기까지는 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몸으로 헌신하시는 숨은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식당 봉사부 부장이신 김순이 권사님, 황홍주 집사님, 여성자 집사님, 김영숙C 집사님, 이인숙 성도님 등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십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지만 질 좋은 식자재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그 곳까지 직접 가시는데 여성자 집사님의 남편이신 황홍주 집사님께서 차량운행봉사를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일찍 교회 식당에 모여 재료를 다듬고, 씻고, 끓이고, 무치고, 볶고... 이렇게 해서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주일날 우리 모두의 주린 배가 행복하게 채워집니다. 한 바탕 전쟁(?)을 치르듯 요란했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용한 그릇들을 모두 씻고 주방과 식당을 청소하고 나서야 또 한주의 식당봉사가 끝나는데, 얼굴에는 땀범벅이 되고 옷은 온통 물에 젖어 춥고 피곤해도 맛있게 드시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매주 무슨 음식을 해야 하는지 식당을 짜는 것도 힘들고 ‘음식이 적네, 맛이 없네, 예전하고 다르네’ 등 불평이 들려오는 것도 속상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봉사자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각 교구에서 목장마다 순서를 정하여 식당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봉사하러 오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여서 결국은 식당 봉사부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매주 이 모든 일을 대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목장의 순서가 되어 식당봉사를 하러 왔었는데 오기 전까지 얼마나 피가 나던지, 갈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음식을 다듬고 손질하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과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식당의 풍경들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식당 봉사부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늘 아름다운 미소로 헌신하심을 알게 되었구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돌아올 식당봉사 순서에 목원들 모두 참여하셔서 헌신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식당 봉사부를 향해 늘 감사의 표현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맛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이번 주 식사도 맛있는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 들쭉 맛있게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음~이번 주 향기는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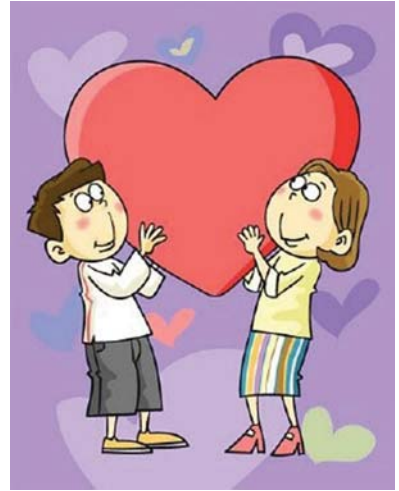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글 김혜경 사모

“부부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언어만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외쳐도 상대방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은 항상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해피 엔딩으로 매듭을 짓는다. 결혼을 앞둔 남녀는 그들의 결혼생활이 동화 속의 행복한 주인공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느 결혼식에서나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모습이고,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힘차게 선서를 한다. 그러나 연애 시절을 마감하고 결혼이라는 현실로 들어가면 서로에게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더 이상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이나, 배려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다.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다툼이 시작된다.



유명한 부부심리학자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서로 다르다. 자라온 가정, 사용하는 언어, 정서적 욕구, 사랑의 표현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결혼생활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다. 결혼생활 전문가 게리 채프만 박사는, 부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상대방을 위한 봉사’,
‘육체적 접촉’이다.”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할 때 자주 갈등을 하게 된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원하는 표현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게리 채프만 박사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였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상대방을 위한 봉사’, 그리고 ‘육체적 접촉’이다.

부부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남편이 사과 표현으로 선물을 주었을 때 아내의 화가 풀리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면,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내미는 작은 선물에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서운했던 마음을 풀 수가 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가 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위해 열심히 청소해 주고,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설거지를 해주었다. 남편의 ‘봉사’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남편이 20분간이라도 그녀와 함께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의 말에 집중해주고, 그녀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녀의 마음창고에 사랑의 감정이 쌓여 며칠 동안 사랑과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할 때 반응을 보이고 사랑을 느끼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이런 배우자는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배우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명절 끝 날,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아내에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온가족이 즐거웠소.”라고 말해보라.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많은 부부가 자신의 원가정(결혼하기 전의 가정)에서 습득한 사랑의 언어에 익숙해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언어만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외쳐도 상대방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성경퍼즐

1				17					2
			18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세로 풀이

- 3월 20일 토요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오후 3~5시까지 7주간의 과정을 배우는 ○○○○학교
- 구스 왕 (왕하19:9)
-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간 장소 (마4:12)
- 3월18일 목요일에 개강하고 장소는 미션홀인 ○○○○
- 사가라의 아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눅1:13)
- 임멜의 아들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선지자 예레미야의 적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을 채워둠 (렘20:1~2)
- 방이나 건물 따위의 안, 반대말은 실외
-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지님 (요9:5~7)
-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 산에까지 빼앗음 (신3:8)
-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로 고쳐주심, ○○를 번역하면 베드로임 (요1:42)
-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창32:28)

가로 풀이

- 고멜의 자손 (대상1:6)
- 잠언, 전도, ○○,이사야
- 모세의 형 아론의 아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어머니 (출6:23)
- 3월 11일 목요일 10시 개강 하며 장소는 비전홀인 ○○○○
- 느보의 자손 (스10:43)
-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
- 무화와 나무집, 무화와 나무밭이란 뜻, 예수님께서 감람산 ○○○에서 두 제자를 보내심 (마21:1)
- 솔로몬의 아들 (대하9:31)
- 오네시모의 주인, 바울의 동역자 (몬1:1)
-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됨, 삼촌이 모르드개 (에2:17)

성경퍼즐 출제



임완재 목사님은 수원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한 분으로 충남대를 거쳐 총신대 신대원을 2007년 졸업하였고, 현재는 우리 교회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제주도 처녀 박수미 사모님과 2009년 12월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이 가득하신 목사님은 해외 선교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정답은 2월호에 게재됩니다.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우리 삶의 발판 가양2동

클 심재성 기자

“회지 ‘함께’를 창간하며 우리 지역과 이웃에 대해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코너를 마련했다.
앞으로 꾸준히 우리의 이웃들을 알려나갈 계획으로,
이번 창간호에서는 우리 교회의 소재지이기도 한
가양2동을 먼저 소개한다.”

‘가양(佳陽)’이라는 이름은 원래 팽잇들이란 들에 마을이 있어 ‘팽이’, ‘갱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가양2동은 대전시 동구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동으로 예로부터 ‘홍릉’, ‘합내’, ‘매봉’, ‘더퍼리’로 불리는 마을들을 모두 포함한 지역이다. 마을의 이름은 저마다 그 유래가 있다. ‘홍릉’의 경우, 원래 ‘흥농(興農)’이란 이름이 발음을 편하게 하다 변화된 것이며, ‘합내’는 두 개울이 합치는 곳에 마을이 있어 불리던 것이고, ‘더퍼리’는 숲으로 우거져 마을을 출입하기가 어려웠을 때 숲에 덮여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던 이름이다.

북쪽으로는 대덕구 비래동과 경계를 이루고 동쪽, 남쪽으로는 대청동, 자양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계족산이 휘돌아 능선을 이루어 아늑하고 편안한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전IC, 고속버스터미널이 근접하여 교통중심의 도시이면서 우암사적공원, 박팽년유허비 등 충절의 문화 유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봄이면 남간정사 일원 더퍼리길은 온통 하얀 벚꽃길로 변모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한결같은 넉넉한 품으로 자리한 계족산의 능선은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고 분주히 등산객들을 불러 모은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언덕 아래로는 신도시장이 자리해 풍성한 먹을거리, 살거리를 펼쳐 놓은 채 언제나 북적대며 사람 사는 냄새를 그득그득 피워내고 있다.

대전의 서구 지역이 발전하면서 가양2동을 비롯한 동구 지역은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 불리며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원도심의 활성화를 내걸고 동구 지역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가양2동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 없지만, 새롭게 재정비되고 현대화되는 가운데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간직할 대전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또한 다하는 지역으로 남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소재지로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전 성시화의 영광스런 사역에 시작과 출발이 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해 본다.

길에서 만나다

“배움터 지킴이, 박무성 선생님”

글 신신혜 기자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을 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길.
그 길 위에서 박무성(70세)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와~사랑합시다. 할아버지다 아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시다 선생님”

2002년 8월 정년퇴임(충남중학교 교감) 후 8년 넘도록 박무성 선생님은 길 위에서 청소년 배움터 지킴이로 서 계신다. 정부 방침 운영 차원에서 청소년 폭력예방 및 상담, 인성교육과 안전을 위해 ‘학교 폴리스’라는 명칭에서 교육과학부에서 권장 되어 대전시 교육청과 광역시가 연합 사업으로 출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배움터 지킴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경찰, 교사, 군인, 공무원 정년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되어 있다.

박무성 선생님은 퇴직 후 YWCA에서 상담과 청소년 인성예절 교육이 계기가 되어 대덕구 청소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등, 하교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시며, 두 손을 펼쳐 사랑 표시를 보이시며 “사랑합시다”를 연신 외치신다. 그런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 맑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구호를 왜 그렇게 정했느냐는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말 중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워요. 컵 속에 물을 담아두고



‘사랑해’라는 말을 며칠 동안 계속하고 그 물의 결정체를 보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생각도 마음도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 주고 싶은데 그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제가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지요.” 겸손한 말 속에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선생님은 교직에서는 물러나셨지만 남은 생애를 아이들 바라보며 배움터 지킴이로 보내고 싶다고 하신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무성 선생님은 중앙장로교회에서 작년에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신다. 겸손함이 묻어나는 선생님,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시면서 연신 손을 저으신 모습이 생각난다. 허락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댁은 가양동이 아닌 산성동이라고 하신다. 산성동에 살고 계셔서 이른 아침에 나와야 하지만 늘 늦지 않게 오신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오후5시까지 가양중학교 근처를 시간마다 순찰하시고, 학생들의 작은 일에도 늘 관심을 갖고 대하신다고 하신다.

선생님께서서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게 해 주시는 순간이라고 하였고, 그 말 속에 잔잔한 믿음의 물결이 전해져움을 느꼈다.

매사에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선생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랑과 믿음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인가 보다.

오늘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나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박무성 선생님은 행복함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그 길 위에서 계신다.

따뜻한 이웃 되살미 사랑나눔 봉사대

글 김용수 기자



심야에도 차량봉사에 열중하는 봉사대원

벌써 10년이 지났다. 되살미사랑나눔봉사대가 장애인에 대한 차량봉사를 시작으로 유성 홍인오피스텔 지하에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원봉자와 장애회원들의 땀과 열정이 묻어난 것이 1998년 4월의 일이다. 재가 장애인들이 마땅한 이동수단과 함께할 공동체가 없어 애태우는 것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병원가기, 시장보기, 친지방문하기 등 작지만 뜻이 없으면 도저히 하기 힘들고 어느 봉사단체도 먼저 나서서 시작하지 못했던 자원봉사를 해 왔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일상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해가 갈수록 문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돕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오게 되었다. 현재 차량봉사자 330명, 후원봉사자 250명, 자원봉사자 120명, 장애회원 600명의 탄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지원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순수 NPO 단체이다. 후원자 중에는 10년 이상 된 후원자가 많아서 되살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어느 봉사단체나 마찬가지이지만 “되살미” 역시 김장섭 봉사대장님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 대장님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김 대장님은 이러한 생각에 오직 겸손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많은 봉사자, 후원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고 오직 봉사에 대한 열정과 보람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았고 가능한 봉사자와 후원자의 역할을 높여 나갔다. 물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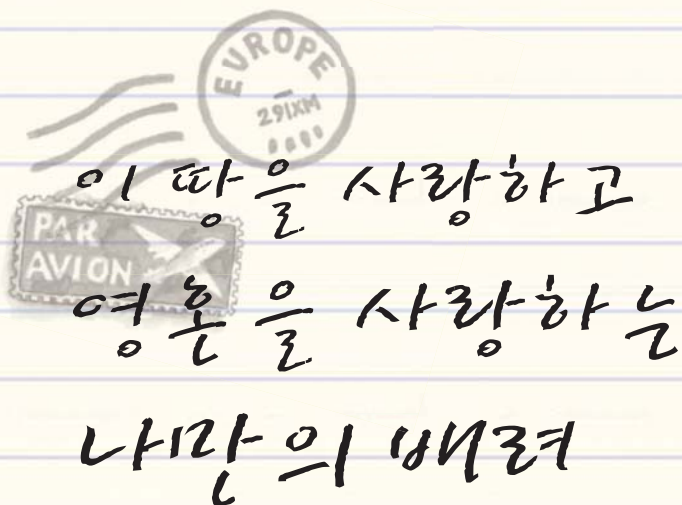
메시아필하모닉 정기연주회 초청 공연 후 지휘자와 함께

풍족한 봉사단체 보다는 올바른 자의식과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뭉쳐진 조직이 더 강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되살미 회원들을 모시고 대둔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음악회를 하고, 바다로 몰려가 생전 처음 바다를 보고 눈물짓는 회원을 보았고, 손수 할 수 없어서 헐어진 벽을 도배하고 함께 차를 타고 시장과 병원, 친척을 방문할 때면 오히려 삶에 힘을 얻는다는 봉사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되살미란 “다시 사는 인생, 다시 사는 삶”이란 의미이며 연중 문화나들이, 의료봉사, 여름나들이, 사물놀이, 열린음악회 초청 참석은 물론 의료봉사, 태안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 등 대외 봉사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행사마다 되살미 회원과 자원 봉사자, 후원회원 등이 합심하여 봉사를 받은 분이나 하는 분이 함께 어우러져 큰 열매을 맺고 있다. 덕유산 향적봉 정상을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한 이강철 이동봉사 후원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되살미사랑나눔봉사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222-2332, 홈페이지 www.ehltkfal.org를 참고해 보시면 된다. 되살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늘 힘차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원한다.



글 천지인 선교사

2010년 신년벽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AX국의 북동지방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겨울날씨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지역인 어떤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입니다. “살아있는 소꼬리가 부러질 정도의 추위”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도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지역에 속합니다. 출장을 갈 때는 내복을 두 겹으로 입지만 추위가 뼈 속으로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제가 이런 추운지역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곳 선교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는 영하 30도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사역자들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열악한 환경, 불편한 잠자리, 보안에 대한 중압감, 경제적인 궁핍함, 미래 사역에 대한 불안감, 외부적인 여건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지만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나는 공동체의 현관문을 열고 땅을 밟아 본다. 여전히 석탄냄새가 코를 찌른다. 다른 단기선교 여행을 온 분들은 코를 막지만 나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둔해진 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나만의 배려인지 모른다.” 16년을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부족한 저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선교현장으로 향합니다.

천지인 선교사(AX국 파송선교사)

세월은 빨라서 벌써 5년이 흘렀다. 2005년 3월 소중히 여기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AX국으로 떠났고 어린 모세, 요셉, 다윗은 훨씬 장성했다. 내조로 동역으로 함께 하시는 온누리 선교사의 손은 거칠어 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2교구 김정윤 집사님 30년만에 찾은 주일



정리 조재란 기자

하나님의 은혜와 중부교회의 따뜻한 사랑으로 올 해 저는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가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도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제 삶의 여정과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30여 년 전 시집을 와보니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앙이 없었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터라 주일마다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자고 찾으시면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다락방에 몰래 숨어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남편이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생과 노력으로 치료는 했지만 남편의 기력이 쇠하여져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집일을 다니다가 직접 식당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런 두 딸과 화목하게 살아가던 2005년 3월 남편의 후두암이 10년 만에 재발하여 이제는 위와 췌장까지 전이되어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무 기력도 의욕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김동선집사가 당시 담임 목사님이시던 김주원목사님과 김진호강도사님을 병원에 모시고 왔고, 두 분은 그 후로도 자주 오셔서 찬송과 기도로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여름 어느 날 남편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더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의 얼굴은 더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 겨울 12월, 남편은 진료 담당의사와 간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동안 수고했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한 후 병실에 들어와서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김진호강도사님을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강도사님은 교회에 초상이 나서 멀리 계셨는데 몇 시간 후 오셨고 남편은 강도사님의 손을 꼭 잡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강도사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목회자들께 감사하여 드디어 저는 김동선집사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하지못해 나갔던 주일예배, 그 주일을 다시 지키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두 딸도 잘 자라주어 큰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작은딸은 기상청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큰딸 지윤이는 주일날 베데스다부에서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잘 다니던 둘째 나윤이는 아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서운해서인지 어느 날부터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회의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며 조금씩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이제는 교회 갈 때 지각하지 말라는 예쁜 잔소리까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윤이의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다시 돌아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잘되어 넉넉하진 않지만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말씀도 어렵고, 기도도 서툴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잘 다가가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중부동산에 핀 이야기 꽃

목장 출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켰던 구역제도가 목장으로 맥을 잇는다. 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 역할의 확대와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셀(Cell)목회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목회방침에 따라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었다. 예배 중심의 구역예배에서 나눔과 실천을 중시하는 목장은 남자목장 32개, 여자목장 65개, 2030목장 6개로 편성되었다. 7일 간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113명의 목자를 중심으로 활기찬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



실버대학



지난 해 교회와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과정을 마친 실버대학이 3월11일 다시 개강하였다. 음악과, 한글과, 현대무용과, 영어과, 장기과, 서예과, 탁구과, 종이접기와 등의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전에는 예배와 초청강연, 맛있는 점심식사, 오후에는 각 분야별 담당 교수가 학생들이 희망한 과정별로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간다. 실버대학 강의를 마치고 귀가할 때

“5년은 젊어졌다”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왜 집에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볼 때면 우리 교회는 지역과 더불어 항상 젊음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자부한다.

장학생 선발

2010년 상반기 장학금 785만원이 수여되었다. 중등부 5명, 고등부 5명, 청년부 7명, 교육전도사 2명, 지역학교(명석고, 우송고)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4명 등 총 23명에게 수여된 장학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수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능판능란-산티팝연합수련회

“1,000명의 성도와 1,000,000번의 물질을 드리자”는 목표로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태국 전역에 흩어진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상용 목사님과 성도 11명이 참석하고, 김정배 선교사님과 싱가포르, 태국의 많은 지원자들이 함께 성원한 이번 수련회에는 약 800여명의 성도가 모이고, 25명이 세례를 받는 등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다. 불교가 국교인 태국에서 1,000여명이 모여 일주일간 예배하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였다.

전교인 체육대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교인 체육대회가 가양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펼쳐진 퍼레이드에서 다채롭고 낮뜨거운(?) 분장을 앞세운 2교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우승을 했고, 3교구의 난타팀은 열정적인 응원으로 특별응원상을 받았다. 1교구는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가장 많은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유치부에서 장년층까지 온 연령층이 함께 한 400미터 계주는 중부교회의 화합을 과시한 가장 특별한 이벤트였다.



살맛나는 가정세미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가정세미나가 열렸다. 5월 기도의 십일조를 겸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편사용 설명서’ ‘아내사용 설명서’의 저자인 이병준 목사님과 이미 가정사역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조상용 목사님이 5월2일부터 4일까지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말 좀 하고 삽시다’ 등 6가지 주제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우리 삶의 반석이며 하나님이 맨 처음 맺어준 가정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세미나였다.

교육과 훈련의 장



2010년 1기 제자반 개강

평신도 사역의 핵심인 제자반이 남자반 3월7일, 여자반 3월9일 개강하였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시작되는 제자반은 시무장로반 12명, 남자반 30명, 여자반 30명, 여성직장인반(저녁)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상용 담임 목사님은 제자반 출범의 의미를 “모든 성도를 제자화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평신도 교육과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보기도학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자가 되라”는 주제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을 아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져 교회와 지역,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훈련하는 중보기도학교가 7개의 세부과정에 따라 실시된다. “나”가 아닌 “너”를 위해 훈련하는 중보기도학교는 1기 수료생들의 활동으로 보아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가정사역학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이웃의 가정을 돕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김혜경 사모가 중심이 되어 전문 강사진과 함께 가정사역학교를 개교했다. 가정사역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의 가정을 돌보고 건강하게 키우는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기학교

아기에게도 학교가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우리 교회의 아기학교다. 유아의 첫 사회생활을 엄마가 도우며 엄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후 12개월~48개월 사이의 아기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미션홀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교리생활공부

2009년 평신도 훈련의 출발점이 되었던 화요성경공부가 2010년 교리생활공부로 재출범한다. 3월16일부터 1년 과정으로 시작되는 교리생활공부는 크리스찬이 꼭 알고 생활해야 할 기독교 기본교리에 대해서 조상용 담임목사님의 명강의로 진행되며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 교육의 기본이 된다.

“우리교회의 신임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상현 목사(3교구)

부드러움과 예리함을 모두 갖춘 양면성의 소유자, 이상현 목사님을 처음 본 소감이라면 맞을지? 이상현 목사님은 고신대 신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2 때 부산으로 옮겨 생활하였으며 10년 이상 청년사역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오셨다. 부산 동부교회에서 교구와 청년사역을 전담하였으며 청년사역에 대한

애정과 깊이가 청년목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목회와 제자훈련, 평신도를 잘 구비시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다. 가족으로는 성악을 전공한 이선미사모와 아들 요한(중1), 예인(4살)이가 있다.

변두성 목사(2교구)

116년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 신앙의 뿌리인 군산개복교회에서 성장한 변두성 목사님은 넘치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한다. 전북대 국어국문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총신대 일반대학원 실천신학을 공부하시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호남의 어머니 교회인 전주서문교회(설립 117년)에서 청년부와 교구사역을 하셨으며, 모든 성도를 부모와 같이 형제자매와 같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는 인간적인 목자로 말씀의 권위에 따라 섬기고 가르치는 말씀의 종(Servant of The Word)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두은경 사모와 시연(유년부), 시은(유치부) 그리고 태아부(?)가 하나님의 선물로 멋있게 자라고 있다.





이단탐구

“이단이란 무엇인가”

글 이승태 목사(교구)

해마다 성도를 미혹하여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세력 때문에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세력들은 타 종교, 반기독교단체, 이단, 사이비, 그리고 정체와 형태를 알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 모임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 중의 하나가 이단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상기의 부류들이 일으키는 현상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단문제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요 영적 전쟁이다.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여 극복할까?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단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단의 실체를 성도들과 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이단탐구’ 코너는 이와같은 취지를 가지고 앞으로 매 회마다 기독교 이단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이단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단탐구’는 우

리 대전중부교회가 지면으로 하는 이단사역이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항상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 ‘이단탐구’는 이단에 대한 서론이다.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이단의 사전적 의미는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정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총칭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단의 한자표기도 이단이 어떤 단체인지 잘 알려준다. 이단(異端)의 한자의미는 “다를 이(異),” “바를 단(端)”으로 “바른 것과 상이함,” 풀어 해석하면 “바르지 않음”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종파를 뜻한다.

이단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어떤 종파가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구별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성경의 교리에 부합되면 정통교회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



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은 개인이나 개 교회가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공교회의 대표기관인 노회나 총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부교회의 경우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최종결정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공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존속하는 이단들도 있고 단기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단들도 있다. 우리교단 총회 산하에는 이단을 전담하여 연구하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다(홈페이지 www.2dan.kr, 이하약칭 “이대위”). 이곳에는 주요이단으로 JMS, 안상홍, 박옥수, 신천지, 그리고 그 외 기타 이단으로 분류하여 간단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단의 목록을 모두 다 제시하는 것은 이단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상 모두 제시하기는 어렵다. 본지의 ‘이단탐구’에서는 최근 우리주변에 기승하는 이단들을 중심으로 그 목록과 잘못된 신앙을 알기 쉽게 다음 호부터 게재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 중의 하나는 은닉성이다. 만일 이 시대의 이단들이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드러내 놓고 포교한다면 건전한 교단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단의 어려움은 그 사이비성에 있다. 이단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통교회이고 정통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한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가 이단의 진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정통과 비슷하게 보여 미혹되기 쉽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숙지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도 잘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그렇게 이단을 구분할만한 교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은 출석교회인 대전중부교회 교역자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하며 또는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4,000명 전도 초청대잔치

글 김연환 집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중부교회의 50여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80년대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들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알고 전하는 일에 신바람이 났었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부장로교회의 50년사를 뒤돌아보아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중부교회는 1982년 은행동에서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사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경험한다. 교회는 1986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4,000명 초청 대잔치를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계획한 수의 배가 넘는 10,500여 명의 시민들로 교회당을 가득 메워 주신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하여 1986년 사업계획에 들어간 전교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헌금을 작성하여 그 해 3월 45인승 버스를 준비하고 7월 20일부터 초청 대잔치를 위하여 개인별, 기관별, 교육부서별로 세부적인 전도 대상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의 각 기관은 야유회, 세미나, 친목회 등을 중단하고 총력전도에 협력하여 힘을 모았던 것이다. 또한 대잔치 준비의 하나로 손충식 목사를 모시고 총동원 폭발 대성회를 가졌으며 수영로교회 정은주 장로의 전도 간증 등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성도들은 9월1일부터 10월 12까지 42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등으로 지역사회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대전 시민들을 향하여 외치고 권하였다. 초청대잔



전도초청대잔치 후 모든 제직이 한자리에 모였다.



4000명을 계획하였지만 10,500여명이 초청된 역사로 동부사거리 부터 교회 인근이 성도의 물결을 이루었다.

치 후 새로 들어온 신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성령 충만 전도 강습회, 새신자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등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사건 이후에 중부 교회는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대각성전도집회를 감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해외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태국, 몽골, 중국으로 확장되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기회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써가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힘이 있는 새로운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민족을 중흥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를 선포하고 우리시대를 향하여 4대 사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매주 마다 반복하여 되새김하고 있다.



김연환 집사님(둔산2목장)은 한전전력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며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신다. 고경진 집사님과 사이에 다윗(중3), 요셉(중1)과 늘 아름답고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

홍시

편도윤(초등부 5학년)

배를¹한 홍시
할아버지 정성 가득 껌방울

물렁 물렁 홍시
할머니 기도 가득 껌방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따 주신 홍시

입 안 가득 홍시 한 입
와! 달고 맛있는 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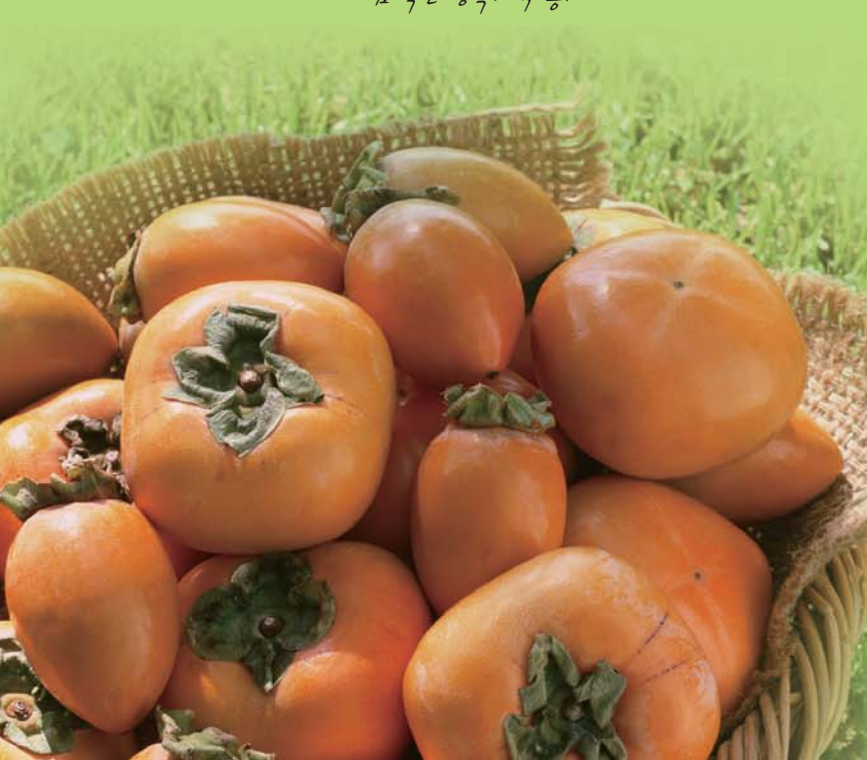
할아버지 웃음 가득 홍시
할머니 사랑 가득 홍시

내 입 속은 행복 가득 홍시

초등부 5학년
편도윤



대부분이 여자로 구성된 어린이 경배와 찬양팀에서 3명의 청일점과 함께 미래 찬양사역의 꿈을 키우고 있는 편도윤(초등부 5학년)은 편대성집사(디딤돌 요한목장), 신신혜집사와 동생 다은(9세, 유년부, 어린이경배와 찬양팀)이와 함께 밝고 친근한 성격으로 인사를 잘하는 인사대장이다.



채세광 강도사님께

강도사님! 저 희수예요.

저는 강도사님이 너무 좋아요.♡
항상 재미있는 성경말씀도 해 주고,
선호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해서

강도사님이 너무 좋아요♡

찬양도 잘하시는 멋진 강도사님!

채세광 강도사님은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빨리 예쁜 언니 만나서 결혼하세요

희수가 많이 축하해 드릴게요

강도사님! 강도라고 놀려서 죄송해요.

이해 해 주세니 감사해요.

강도사님! 축복하고 사랑해요

- 김희수 올림 -



글 · 김희수(유치부 2학년)

김상희집사(남3-7목장), 천은희 집사님(삼호1목장)의 늦둥이 막내 딸 희수는 유년부 2학년으로 활동적이고 밝은 어린이이다. 올 해 대학생이 된 쌍둥이 언니(지수, 은수)가 있어 늘 든든한 희수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청소년 코드읽기”

스타에 열광하는 청소년과 교회

글 왕은식 집사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하다.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인식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최근 어느 가수가 수년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썼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에 대한 소녀 팬들의 반응이었다. 그녀들은 혈서까지 쓰며 그의 복귀를 탄원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리혈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혈서 쓰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최근 사건들이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연예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연예인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어린 아이들의 한때 방황으로 보기도 한다.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일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왜”와 “그래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를 알려면 청소년기를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변화이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차 성징을 겪으면서 청소년은 일단 달라지는 자신의 몸을 인식한다. 또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직 어른이 아니기에 자신의 성을 위협하게 받아들인다. 실제 사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감은 있으나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그 시기의 성이다. 이 때 청소년은 안전한 성적 대상을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스타이다. 동경은 하되 만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그렇기에 그는 보다 완벽한 존재로 인식되어지며, 그에게 열광하게 된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그렇지는 않다. 단지 그런 청소년은 그런 마음상태를 가진다는 것뿐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상 속에만 존재하던 스타가 현실로 와버리게 된다. 이제는 스타가 더 이상 안전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에

게 편지를 쓰고, 그를 만나러 공개방송에 간다. 그를 싫어하는 다른 스타의 안티가 되고, 그에게 대쉬하는 연예인을 싫어하게 된다. 그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게 된다.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안전한 사랑은 위험한 현실이 된다. 그리고 스타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와 주위에 자신의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되면 대개는 사라진다.

“그래서” 어찌자는 말인가. 어느 정도 스타에게 열광하는 것이 당연하니 내버려 두자는 것인가. 스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화 되지 않았을 때는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 어느 정도까지 용납되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안되는 것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정도는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때부터이다. 영화에서의 멋진 모습이 현실에서의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외모가 훌륭한 내면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잊고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환상속의 사랑은 현실에의 성장을 방해한다. 성인이 되기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을 환상속의 사랑에 매달려 허비하고 현실에서의 사랑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크다.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은 비단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사춘기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하다.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인식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역으로 교회의 청소년들이 스타에 열광하며 자신의 본분을 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고등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왕은식 집사 |

왕은식 집사님은 국군함평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포항 인성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우리교회에서 성장기를 거치며 반석같은 신앙을 쌓은 집사님은 부인 정효정 집사님, 딸 희송(7세)이와 함께 아름답고 밝은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모의 글”

김현영 사모 |

김현영 사모는 군산 개복교회에서 신앙을 가꾸어 오시던 중 개복교회 담임목사님 소개로 당시 개복교회에서 사역하던 이승태 목사님과 1999년 결혼하여 딸 승현(유년부3), 지현(유년부1)을 두고 있다. 신학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계시며, 조용한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충실히 가꾸어 나가는 우리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

제가 사모가 아니었다면 사모에 관한 글을 써 달라고 원고 청탁을 받지는 않았을텐데, 대전중부교회의 부목사 사모가 되어 부담 백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사모입문

제가 결혼을 결정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혼할 당시 ‘사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달라는 남편의 말에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 결혼했을 때 누가 사모님이라 부르면 답살이 돌아 안절부절 못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모훈련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익숙해지면서 제 마음 속에는 막연히 좋은 사모가 되고 싶은 소망이 일었고 그 소망이 주는 자신감 때문인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평범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요구되는 역할은 모든 공식 예배의 참석, 담임목사님 사모님(이하 담임사모님)과 드리는 구역예배, 철저한 현금생활, 봉사, 성경읽기, 기도, 그리고 기타 외부활동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들은 저의 사모됨을 단련시켜갔습니다. 사모구역 예배는 어머니뻘 되시는 담임 사모님과 또 다른 부목사 사모님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눕니다. 또 처음 사모가 되었던 교회의 담임사모님께서는 부목사 사모들이 YWCA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는데 저도 그 합창단 단원으로 음악회와 교회 순회공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와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접할 수 없던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고 사모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로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 중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은 지금도 대전중부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새벽예배입니다.

계속 중인 사모훈련

사모로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단련들을 통하여 삶의 관점을 제 자신의 신앙에서 교회로 바꾸십니다. 사모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타이틀이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모가 그렇겠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사모로서 교회 안팎에서 연단을 받고,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며 대전중부교회의 부목사 사모로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며 더 좋은 사모가 될 것입니다.

문홍팀 웃음소리



김용수 편집장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더니 그 속에서 매화가 피었습니다. 화무십일홍임을 매화는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비바람도 매화도 화무십일홍도 '함께' 안에서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신혜 기자

우리 삶의 좋은 날은 모두 "함께"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좋은 만남, 나 혼자서 만들 수 없지만 "함께"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행복! 기쁨! 자 지금 "함께"와 아자 아자!

최정은 기자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릿츠를 소화하고도 힘이 남아도는 세계 최강 문홍팀 화이팅!

심재성 기자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함께'라 가능했던 일! 부족한 달란트를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함께' 달린다!

이은영 기자

우리의 만남이 "함께"라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함께" 할 때입니다.

조재란 기자

"함께"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여러 성도님들의 보석같은 귀한 삶.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잠있게 읽어 볼까요? 우리 "함께"? ^^



“꽃 보다 아름다운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2030 3교구 바울목장에 속한 아빠 박명환 집사, 엄마 김은주A 집사(바울목장 예비목자), 그리고 귀여운 동생 성주(3세)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자라고 있는 예은(7세)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치부의 예쁜 어린이이다.

유치부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박명환 집사님은 조영희 권사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을 이어 받고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금산 마전에서 착실히 신앙 생활하던 김은주 집사와 결혼하여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KTX 고속열차 전기제어를 담당하며 3교대로 일하는 바쁜 생활이지만 강건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

그림 · 박예은(유치부)



2010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뜨거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한마음 수련회!
여름 휴가는 화양계곡에서 한마음 수련회와 함께 합니다.
미리 일정을 맞추어 모두가 하나 되는 한마음 수련회를 만듭시다.

누가 _ 중부교회 모든 지체

언제 _ 7월29일(목) ~ 31일(토)

어디서 _ 충북자연학습원(속리산 화양계곡)

